

다시 쓰고 고쳐 쓰는 자원 순환... 지구 살리는 한걸음



지난달 2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걸음 가게에서 열린 '너와 나의 공유 옷장, 21% 파티' 현장은 활기가 넘쳤다.

〈한걸음 가게 제공〉

광주일보 '지역공동체활성화' 프로젝트

'자원 순환 실험실' 11월까지 진행
 리페어워크숍·자원순환축제·토론회 등
 재미있게 즐기는 환경 프로그램 구성
 옷 교환 파티·아이폰 배터리 교체 워크숍
 일회용품 없는 팝업 카페 등 운영

'중고 티셔츠 한 벌은 70번 샤워할 수 있는 2700ℓ의 물과 600g의 탄소배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걸음가게에서 열렸던 '의류 교환 파티'에서 만난 글귀다. 일상 속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광주일보는 한 번 만들어진 물건의 쓰임과 순환을 고민해 보는 '쓸모의 시간-다시 쓰고 고쳐 쓰는 자원 순환 실험실'을 오는 11월까지 한걸음 가게에서 진행한다. '쓸모의 시간'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올해 처음 시행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순환경제사회 촉진법이 제정되고 재활용, 리페어, 제로웨이스트 등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기획은 '생활 속 환경 운동'을 표방한다.
 '쓸모의 시간'은 딱딱한 프로그램 대신 의류 교환 파티, 아이폰 배터리 교환 등 리페어워크숍, 자원순환축제, 관련 토론회 등 재미있게 즐기며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1% 파티'를 주관해온 다시입기연구소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의류 교환 파티'는 모두 세 차례 열린다. 안 입는 옷을 가져와서 마음에 드는 다른 옷으로 바꿔가는 옷 교환 파티에

서는 기초 재봉 기술 교육 등 수선 워크숍도 함께 진행한다. 리페어 워크숍도 눈길을 끈다. 아이폰 배터리 교체 워크숍, 우산 수리 워크숍, 자전거 수리 워크숍 등이 예정돼 있으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주제의 리페어 워크숍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의 날(9월6일)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자원순환 파티를 연다. 의류교환파티와 함께 폐현수막을 활용한 봉투만들기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일회용품 없는 팝업 카페도 운영한다.
 요즘 화두로 떠오른 '수리권'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관련 집담회도 진행한다. 수리권은 어떤 물건이든 처음부터 소비자가 고쳐 쓰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다. 프랑스 등에서는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리권 규제가 이미 도입돼 있다. 10월에 열린 집담회에는 서울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6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국제 수리의 날(10월 셋째주)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쓸모의 시간' 프로젝트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 단체 유어스텝(대표 김지현)이 함께한다. 유어스텝은 지난 2020년부터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과 리페어 문제에 특화된 문화 기획과 행사, 교육,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다. 숲과 나눔재단, 조선대 이공대, 광주 동구청, 광주 여성재단 등 다양한 단체와 협업해 왔으며 리페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의 수리점 등을 소개한 '고쳐볼 지도'도 제작했다.
 유어스텝은 특히 장비대여점, 수선 가능한 재봉시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워크숍을 열 수 있는 공간인 제로웨이스트숍 '한걸음 가게'를 이달 정식 오픈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지현 대표는 "광주일보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아직 지역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수리권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묵혀둔 옷 새 주인 찾아주는 너와 나 공유 옷장 '21% 파티'

아이템 수만큼 교환권 받아
원하는 옷으로 바뀌는 행사

셀프 수선 드르륵 재봉틀 체험
'쓸모 워크숍' 기초 봉제 교육

"살이 너무 불어나서 널 보낸다"
"이 색 좋아하는 분께 입혀지길..."
주인 기다리는 옷 사연 읽는 재미도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 하는 20대 남성, 구멍난 양말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집에서 가져온 옷을 내놓은 후 다시 집으로 가져갈 옷을 고르는 아이와 엄마. 지난달 2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걸음 가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의생활' 캠페인 '너와 나의 공유 옷장, 21% 파티' 현장은 활기가 넘쳤다.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옷을 교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1% 파티'는 다시입기연구소가 옷의 환경 파괴를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에 처음 시작한 '전 국민 옷 바꿔 입기' 운동이다.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되는 옷은 1500억 벌 이상으로 이중 73%는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21% 파티'는 사 놓고 입지 않는 말쑥한 옷을 바꿔 입고 나누어 입는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 환경 캠페인이다. 자신의 옷 중 안 입는 옷의 평균 비율이 21%, 즉, 5벌 중 1벌은 입지 않는다는 다시입기연구소 설문 조사 결과에서 가져온 행사명이다.
 아름다운 가게와 제로웨이스트샵 몽몽만남이 함께 진행한 의류 교환파티는 참여자들이 가져온 아이템 수만큼 교환권을 받아 원하는 옷으로 바뀌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남방, 티셔츠 등 상의류, 치마, 원피스, 바지 등 의류와 모자, 가방 등 패션잡화를 일인당 3벌씩 가져와 옷걸이에 걸린 다른 사람의 옷과 교환했다.
 '5년전 백화점에서 널 처음 만나 구입했지만 2번밖에 못 입었어. 살이 너무 불어나서, 널 보낸다. 부디 널 빛나게 해줄 주인님에게 안겨.' '스웨터야, 2-3년 전쯤 인터넷에서 처음 만났지. 편하게 입으려고 샀지만 10회 밖에 못입었지. 요즘 손이 잘 안가서 너를 보낸다. 베이시즘을 좋아하는 분께 입혀지길.'
 파티에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옷에는 각각의 사연이 담겨 있어, 사연을 읽는 재미도 있었다.
 이날 옷교환 파티에 참여한 인원은 75명으로 121점의 의류가 교환됐다. 한 산하면 물 3만 5268ℓ가 절약됐는데 이는 35명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다. 또 탄소는 93만 2910g 줄었고, 이는 서울-부산 노선을 21회 운행할 때 나오는 배출량이다.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쓸모 워크숍도 진행됐다. '드르륵 재봉틀 체험'은 낯설었던 재봉틀과 친해지는 시간으로 간단한 셀프수선을 배워 라벨을 직접 붙여보는 행사를 진행했다. 윤연우 작가가 진행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더 이상 입기 어려운 티셔츠로 만든 실을 활용한 티셔츠 안 체험으로 간단한 직조 기법을 배워 티코스터를 만들고 함께 매트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그밖에 한뫼클럽의 '구멍난 양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다양한 색실을 활용한 바느질로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문양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톱블러를 가져온 이들에게는 무료로 차를 제공했다.
 행사를 진행한 김지현 한걸음 가게 대표는 "지난해 처음 의류 교환 파티를 열었을 때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도 교환파티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